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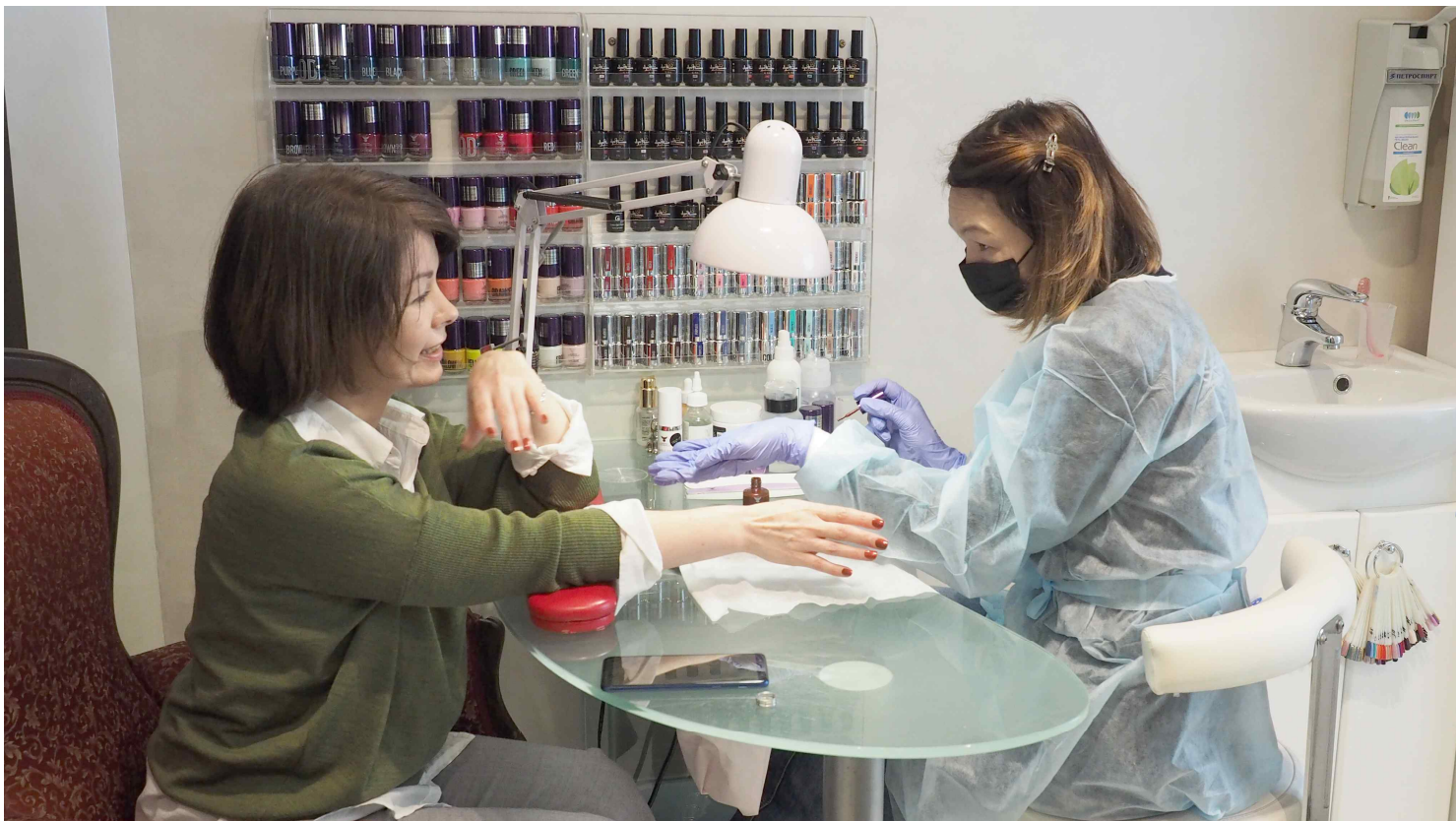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4월 24일(금)
...(음력 4월 2일)...

Пятница
24 апреля 2020г.
№ 16(11688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주 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80여 개의 미용실과 뷰티숍들이 4월 20일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허가 재개를 받은 이들은 일회용 위생복, 장갑과 마스크를 꼭 챙겨야 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미용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주민들에게 인상된 실업급여 지급

사할린주 주민 고용노동부에서 3월 1일부터 해고된 실직자,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재계산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실직자의 총수치는 90명 정도이며 이들에게 실업급여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사할린주 남부와 중앙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월 1만6982루블리, 오하와 노글리키 지역은 1만9408루블리, 쿠릴 열도는 2만4260루블리를 지급하도록 했고 3월1일 이후 실직자들을 위한 러시아 연방에서 규정한 기본 실업급여는 월 1만2130루블리다.

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실직자에게는 부모 중 한 명에게 자녀 1명당 월3천 루블리 급여가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사할린주 어선들 대구 어획량 최고치

사할린주 업체들이 어려운 어업 환경 속에서 연초부터 명태 15만 345톤, 태평양 청어 9천131톤, 대구 1만3,766톤의 어획량을 성취했다.

사할린주 명태잡이 어민들의 어획량은 지난해 비해 326톤, 청어는 2천348톤 뒤쳐졌지만 대구 어획량은 작년 수준보다 5천436톤을 넘었다.

사할린에서 레닌 기념 전시회 개최

블라디미르 일리츠 레닌 탄생 150주년 기념 전시회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레닌은 소비에트 정치 및 국가 기관의 수장, 1917년 10월 혁명의 지도자이자 조직위원장, 세계 첫 사회주의 국가 설립자이다.

전시된 출판물은 레닌의 활동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면들을 소개하고, 문학과 예술과 문화에 대한 그의 관계성을 밝혀내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의 특별한 가치와 희소성을 지닌 소장품 중에서 독특한 출판물의 재고찰을 발표한다.

검찰청, 두 번째로 알렉산드르 호로샤원 기소 승인

검찰청은 알렉산드르 호로샤원 전 사할린 주지사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를 승인했다. 그는 러시아 연방 형법 290조 6항(뇌물수수), 290조 6항 30호 1목(뇌물수수 준비)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11일까지 알렉산드르 호로샤원 전 주지사가 이끄는 그룹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 5대 하원의원 선거에 후보로 참가하려는 시민들로부터 200만~1천만 루블리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총 1억 루블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친애하는 여러분!

4월 26일 사할린주 휘장기의 날을 기념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사할린주의 주요 상징은 독특합니다. 바다의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표현한 사할린의 휘장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할린주의 지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기는 다른 행정지역의 휘장기 중에서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휘장을 보며 자신이 사할린 땅에 존재하고, 사할린과 쿠릴 주민의 크고 화목한 가족에 속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결속력은 언제나 큰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사할린주는 경제발전과 대규모 투자기회 실현에 있어서 선두를 차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삶을 위한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 스포츠, 문화, 보건, 교육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이 어려운 도전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확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임무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팬데믹의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를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나 주 주민들 각자가 참여하고, 공공의 지침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에 머물며 가족과 더불어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할린주의 휘장기를 소셜 네트워크와 가정의 창가에 상징으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결과 사할린 지역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강건함과 힘과 인내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입국자 통제 시스템 가동으로 사할린 지역 주민 보호

현재 사할린에 6천여 명이 러시아 소비자보호청의 지시로 자가격리하거나 관찰 보호소에 격리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관찰과 감시는 러시아 소비자보호청의 직원과 법 집행관들이 하고 있다. 이들은 사할린에 내도해 공식적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의 주소지 100 개를 매일 찾아가 관찰하고 있고, 격리 보호소에 입소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비상사태위원회 분과 위원회 방역·위생 회의에서 보고했다.

러시아 내륙에서 사할린으로 운항하는 항공편도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사할린에 내도하는 승객 관찰에 들어가면서 조만간 관찰 보호시설 수가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격리 보호소에서 약 천 명이 격리되었는데 대부분이 교대 근무를 위해 사할린에 오는 사람들이다.

"격리 보호소에는 엄격한 규정을 지키고 있다. 특히 청소와 사람 검진하는 부분이다. 14일간 격리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2번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필수적으로 컴퓨터 폐 단층 촬영을 받고 있으며 의료진들은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이 각각 관찰보호소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덧붙였다.

사할린에 거주등록된 약 5천 명의 주민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자가격리 중이다. 그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 약 180명이 되었다고 밝혀졌고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150만 루블리다.

4월 23일 현재 사할린주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확진자 20명, 그중 13명이 완치되었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창의력을 발휘해 음악에 대한 사랑을 가르친다

<에트노스>예술학교의 박완순 선생님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창설 25주년이 되는 해다. 한민족의 전통과 예술을 지켜오는 <에트노스>학교 한민족과는 사할린 한인동포들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다. 본지에는 이 학교 학생들의 활동과 선생님들의 창의적 업무에 대해 많이 소개해왔다. 이번에는 단소를 가르치는 박완순(릴리야 세르게예브나, 1982년생) 선생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 코르사코브 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배운 릴리야는 미래의 직업이 음악과 연관이 될 거라 믿었다고 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9학년을 마친 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사할린 음악전문학교(현 사할린예술전문대학)에 입학했다. 그 당시엔 15세의 소녀로서 다른 도시에서 혼자 살 자신도 있었고 독립적 의지도 강했다고 한다. 부모님도 딸의 의지를 믿고 책임감 높은 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전문 과목과 함께 중등교육 과목도 익혔다. 그녀가 선택한 학과는 합창과 지휘였다. 좋아하는 전공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재미있어 그렇게 4년을 공부했다.

전문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앞으로의 직장을 생각해야 했다. 그때 릴리야에게 음악전문학교 한 선생이 <에트노스>학교 한민족예술과에서 음악교사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추천했다. 그리하여 <에트노스>학교의 나탈리아 에이지노와 초대 교장선생님을 만나 한민족과에 들어가기 전 준비과정인 예술미학과와 학령 전 아동들(유치원

생)에게 음악 기초지식, 합창, 그리고 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흥미로웠다고 한다. 조금씩 교사로서의 경험도 생기고 학교 생활과 활동이 재미있었다. 5년 후에는 에이지노와 교장 선생이 '단소를 배워보라'는 권고를 하니 한국에서 온 강사에게서 단소를 익혀 그 후 한민족예술과의 단소와 합창교사로 활약을 시작했다.

단소는 오래된 대나무로 만든 한민족의 전통악기로 관악기의 하나이다. 국악기 중에서 그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소리내기가 쉽다. 맑고 깨끗한 음색이 아주 좋아 박완순 선생은 이 악기가 바로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박완순 선생은 단소만 가르친다. 그에 따르면 단소로 전통 민속음악도 할 수 있고 에스트라다 멜로디 연주도 하는데 관객들은 플루트 소리와 비슷한 이 단소 소리를 좋아한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작년에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행사 때 <에트노스>학생들이 단소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모두가 부드럽고 정갈한 소리에 매료되었다.

현재 박 선생은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 18명에게 단소를 가르치고 있다. 이번 졸업반 학생은 5명이다. 릴리야 세르게예브나는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고 항상 전력을 다한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때문에 모든 학교(일반학교, 예술학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시기가. 처음 원격체제로 넘어갈 때 조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웠는데 차차 나아졌다고 한다.



12년 전에 결혼한 그녀는 10살의 딸과 2살의 아들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인 딸도 원격수업을 받고 있고, 박 선생도 재택근무로 집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다가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을 해야 하니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게 좀 복잡하다고 한다. 요즘은 정리가 거의 되어 학생들과의 수업은 스카이프와 왓츠앱(모바일 메신저) 동영상 통화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에 <에트노스>에 취직한 박완순 선생에게는 <에트노스>가 유일한 일터다. 삶의 절반을 그는 바로 이곳에서 근무했다.

"<에트노스>는 저에게 두 번째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료들이 좋은 친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박완순 선생은 말했다.

김 안나 무용 선생은 릴리야 선생에 대해 "일하실 때 릴리야 선생님은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공정하며 자신감있는 사람입니다.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그녀는 유머 감각도 있고, 사교적인 면도 있고, 즐거움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한민족문화예술과 신 울리야 과장은 릴리야 선생에 대해 그녀가 솔직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교육자 그룹이든, 학생 그룹이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을 가진 데 대해 릴리야 세르게예브나를 매우 존경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박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고 그녀의 수업을 즐겨 다닙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생에게 악기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라고 신 과장은 덧붙였다.

몇 년 전에 릴리야 세르게예브나는 또 하나의 시도를 했다고 한다. 신 울리야 과장이 '태평소를 익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에 거절하지 않고 최근에 <에트노스>학생들이 해마다 여름에 남도국악원에서 연수를 받는 기회에 함께 가서 태평소를 배웠다고 한다. 태평소 연수로 릴리야는 세 번 정도 남도국악원에서 수학하며 그 동안 실력을 키워왔다. 릴리야 선생은 "아직은 제대로 된 태평소 전문 음악인도 아니고 초보를 익

힌 것뿐이다."이라고 하는데 신 과장에 따르면 남도국악원 측에서는 박완순 선생님의 태평소 연주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외국에서 이런 수준의 연주자 찾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사실 태평소는 풍물굿에서 화려하고 강렬하면서도 애처로운 소리를 내는 국악기며 풍물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주요 가락을 부는 악기다. 한국 전통악기 중 목부에 속하는 공명악기인데 쉬운 악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풍물굿, 판굿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악기이다. 그래서 단소 교사 외에 그녀는 악장으로서 학생들이 하는 판굿에 참가한다. 이를 연습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한편,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딸은 물론 <에트노스>예술학교의 학생이고, 전통무용과 가야금을 익히고 있다. 보통 <에트노스>교사들의 자녀들이 <에트노스>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모든 자유시간을 함께 보내곤 한다. 특히 산책을 많이 하고 소풍을 즐긴다고 한다.

겸손하면서도 자기 일을 좋아하는, 자신있는 전문가, 동료들의 존경과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육자, 좋은 엄마와 아내로 살아가고 항상 도전을 하는 박완순 선생님을 응원한다.

우리 모두는 <에트노스>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팬이다. 한민족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이들의 노력과 실력에 박수를 보낸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푸틴 대통령, 여권 및 운전면허증 갱신하도록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유효기간 만료 예정 혹은 만료된 러시아 여권 및 운전면허증이 갱신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법령은 4월 18일 토요일, 모스크바 크렘린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다고 '이즈베스티아'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만 14세가 되었지만 아직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출생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간주된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19의 장기 확산의 조짐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푸틴 продлил действие истекающих паспортов и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Паспорта и водительские удостоверения россиян, срок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х истек или истекает с 1 февраля по 15 июля 2020 года, будут 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публикован на сайте Кремля в субботу, 18 апреля, сообщают "Известия".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достигли 14-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в период с 1 февраля по 15 июля 2020 года, но еще не получили паспорта, документом, удостоверяющим личность, будет считаться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Такие меры приняты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사할린 '도서관의 밤' 행사 온라인으로 진행

4월 25일 18시부터 22시까지 사할린주 일반과 학 도서관에서 대전을 승을 기리는 '도서관의 밤' 러시아 연례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처음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하여 유튜브를 통해 도서관의 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주 문화고문서부의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생방송을 진행한다. 이어 시청자들은 니콜라이 타라스코브와 이고리 사마린의 강의, '75# 승리의 단어' 온라인 경주, '우리 승리의 기억' 사할린 음유시인의 온라인 공연을 볼 수 있다.

주내 주민들은 자가격리 중 읽었던 책들에 대한 소견을 주최 측에 보내고, 실시간 방송으로 강사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행사의 직접적 참가자가 될 수 있다.

행사의 일환으로 사이트에서 모든 사람들은 '도서관의 밤'을 위해 특별히 촬영된 다양한 행사들 - 활동교실, 인지 게임, 전쟁시기의 신문과 문학 논평, 희귀 서적 논평 등-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가상 전시회에 가보고, 온라인 퀴즈대회에 참가하는 등,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경연의 참가자들은 <벚꽃잎 끝에서>삼행시(하이쿠) 경기, <1년 후에 보내는 편지>기획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활동들을 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킹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공식 페이지에서 생방송을 보낸다.

며칠에 걸쳐 새로운 방식으로 '도서관의 밤'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모든 행사 마당이 소개된다고 도

서관 측이 전했다.

Библиночь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онлайн

Ежегодная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кция "Библиночь", посвященная Великой Победе,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5 апреля с 18.00 до 22.00.

В этом году в связи с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акция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и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зрителей на YouTube-канале библиотеки. Откроет трансляцию областной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Нонна Лаврик. Далее зрителей ждут лекции от Николая Тарасова и Игоря Самарина, онлайн-марафон "#75 слов Победы" и онлайн-квартирник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бардов "Память нашей Победы".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смогут ста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акции, отправив организаторам отзыв о прочитанных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книгах, задав вопросы лекторам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В рамках акции на сайт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смотреть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исанны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Библиночи". Это мастер-классы,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игры, обзоры литературы и прессы военных лет, а также обзор книг из редкого фонда.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иртуальными выставкам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викторинах и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и интересного.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а трехстиший хайку "На кончике вишневого лепестка" и проекта "Послания через года" также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свои работы на сайте библиотеки. Для тех, кто предпочитает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в официальном Instagram СахОУНБ также будут прямые включения.

(8면에 계속)

4학년~8학년 학생들, 2020년 가을학기에 전 러시아 검정시험을 치를 예정

올 봄에 치러야 할 전 러시아 검정시험을 4~8학년 학생들이 2020년 가을학기에 치를 예정이라고 지난 20일(월) 사할린주 교육부 장관 대행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가 발표했다.

"팬데미 조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하는 일이다. 당초 5월에 전국적으로 학기말 검정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러시아 교육부는 이를 다음 학기 초에 치르기로 했다. 시험 점수는 매기지 않으며, 무엇보다 결과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학생들의 시험 준비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무엇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중요하다."고 장관 대행이 설명했다.

아나스타시야 키크테와는 전국 학생 경시대회 주요 단계도 취소되었다고 전했다. 올 학기에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내년 지각능력 경기 결승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지방, 지역 단계를 반복해 통과할 필요가 없으며 사할린에는 이런 학생이 12명이다.

아나스타시야 대행은 사할린주 국가수능능력시험(ЕГЭ)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올 국가수능능력시험에 사할린주 졸업반 학생 3천 명이 시험을 치를 계획이지만, 전례대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중소리>행사는 취소된다고 전했다.

국가수능능력시험은 시험장에서 직접 치르며 전 지방행정지역을 위해 동일한 시간표가 확정되었다. 일단 6월 8일에 시험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시험 실시 기간에 대한 러시아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5월 명절 기간이 지나서 발표될 것이다.

9학년생들을 위한 졸업시험은 6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되며 사할린과 쿠릴의 학교 졸업생 5700명 이상이 국가 최종 검정시험에 참가한다. 9학년생들을 위해서는 선택과목 시험이 취소되고 필수과목인 러시아어와 수학만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구체적인 시험 날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주 교육부가 전했다. 9학년과 11학년생들 시험장에서는 필수인 소독 조치도 취한다.

사할린주 1학년생의 교육과정은 5월 15일로 끝나고 남은 학년들은 통신수업으로 전환해 계속한다. <온라인 나의 학교>는 러시아 교육부와 우수 출판사가 공동으로 개설하여 무료 통신교실을 연다. 가정에서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자율학습을 위한 학습자료와 전체 학업 증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구비돼 있다. 4월27일부터 러시아 공영방송국에서는 올해 국가수능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급생들을 위한 동영상 수업이 매일 30분간 방영된다.

방송 편성표는 <러시아 통신학교> 포털 사이트와 교육부 사이트 특집 항목에 올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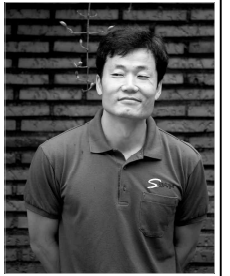
연방 교육과학대학 사이트에는 국가 수능능력시험 및 국가 기초시험에 독자적인 준비에 따른 체계적인 조언과 시험 감독·측정 자료 방침을 공지하고 있다.

통신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문의는 전화 핫라인(8 800-201-22-80)으로 연락해 상담이 가능하며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공초가 더 맛있을 때

어릴 적부터 할머니들이 좋았다. 할머니들은 나이를 드실수록 더 귀여워지는데 이걸 할아버지들이 절대 당할 수 없는 경쟁력이다. 나 같은 불효손자 대신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더 사랑해 드리길 바라며 죄책감을 던지지 밀어놓을 뿐이다.



열 살이 못 되었을 때 엄마와 함께 먼 친척 할머니를 가끔 찾아갔다. 툭툭거리는 시골길을 버스로 달려가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고무신도 신지 않고 달려와 반겨주었다.

할머니는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셨다. 잘게 썬 담배를 푹푹 눌러서 하얀 연기를 뿜뿜 올리면 동화책에 나오는 호랑이가 생각났다.

집에 돌아와 아빠의 재떨이를 보고 할머니를 떠올렸다. 공초를 까면 실담배가 나온다. 할머니가 피우는 그런 담배다. 나는 작은 상자에 실담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가난해서 거북선이나 한산도 같은 아빠담배를 못 피우니까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공초를 까다보면 지독한 담배냄새가 났다. 무심코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가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재떨이를 볼 때마다 깨끗하게 치웠더니 아빠가 가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빠 손에서는 독한 담배 냄새가 났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담배 상자가 제법 찼다. 다시 만난 할머니는 담배상자를 보고 나를 오랫동안 안아 주었다. 내가 드린 담배를 태우며 연기 속에서 웃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내 선물을 좋아하는 할머니를 보니 냄새 고약한 공초 대신 향기로운 새 담배를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아빠 담뱃갑에 종종 손을 댔다. 아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면 심장이 쿵쿵 뛰었다.

새 담배도 공초에 섞이면 냄새가 고약해지긴 마찬가지였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수백 갑 사서 모조리 할머니에게 까드리겠다고 마음먹었다.

담배 상자가 가득 찼는데 엄마는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다. 한참 뒤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걸 전해 들었다. 주인을 잃은 담배상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아빠는 담배가 줄어들지 않아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아깝다 싶은 공초를 보면 그 때 생각이 난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 보니 할머니가 내 담배를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다. 향긋한 새 담배보다 찌든 공초가 더 맛있는 순간, 인생은 멀고 힘든 길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군데군데 쉼터가 되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김남중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АНОВЕДЧЕСКАЯ ОЛИМПИАДА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ТЕМУ:
«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КОРЕИ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ЭПОХ»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Три блока вопросов:

- Традиционная музыка: традицион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орейское музыкаль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традиционном стиле *самульнори*, корейская крестьянская музыка *понак*, корейская опера *пхансори*,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Ариран*».
- Современная музык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K-POP.
-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диалоге двух стран России и Кореи.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30.04.2020 г.
Регистрация: до 29.04.2020 г.
Форма проведения: дистанционная (www.edu.sakhgu.ru).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кто наберет 50 % и более правильных ответов, ожидает подарок – творческий набор для раскрашивания (веер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тематикой и магнит с портретом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BTS).

사할린 주지사의 공식 연봉 1년 새 절반으로 감소

사할린 주지사 알렉시 리마렌코의 2019년 연봉이 보고되었다. 주 정부 사이트에 공지된 문서에 따르면 '로스아톰'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지냈던 2018년과 비교해볼 때 연봉은 절반 이하인 5천40만 루블리로 줄었다. 사할린 주지사의 연봉은 1년 전에는 8천990만 루블리로 신고되었고 올해는 3천950만 루블리로 보고되었다.

주지사 부인의 연봉은 2019년에 310만 루블리였는데 지난 보고서에 총소득액은 약간 낮은 260만 루블리였다. 지난해 사할린 주지사의 개인 소유로 17개의 부동산이 등록되었다. 이중 절반이 아파트와 건물들, 2채의 주택(배당과 공동소유), 부지 3곳(1곳은 개인 용도), 대부분 개인적 비주거용 부동산이 등록되었다. 알렉시 리마렌코 주지사는 105m²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부인과 공동 소유의 주택 2채, 3채의 임대 아파트, 부지 4곳(이 중 2곳은 부인 소유) 주택2채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공식 등록에 따르면 가족 소유의 부동산 목록 변동은 없었다. 주지사 리마렌코 가족의 동산은 덜 다양하다. 주지사에게는 자가용이 없고 개인 소유로 보트 및 화물 운반이 딸린 러시아산 차량, 부인은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GLE 450 4MATIC) 1대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목록에는 '메린(GLE 300 4MATIC)'도 등록되어 있었다.

알렉시 리마렌코는 '로스아톰' 회사 기계공학부 원자력 수출팀 총책임직에서 2018년 12월 사할린 주지사 대행직에 임명되었다. 2017년에 그는 이 직책에서 1억 1천만 루블리의 연봉을 받았었다.

현재 주지사의 연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이 직책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다. 그의 전임자 올레그 코제야코는 2500-2600만 루블리를 받았고, 뇌물 혐의로 직책에서 물러난 알렉산드르 호로샤윈은 2013년 당시 연봉이 880만 루블리로 보고되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пецпроект

Пусан: город поэзии и страсти Пусан: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во глав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Именно из Пусана в начале XVII век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мчжинской войны в Японию отправлялись корейские посольства с целью продвижения мирны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стория Пусана как центра актив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по сей день.

Пусанский порт — крупнейшие морские ворота, через которы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импорт и экспорт Кореи. Как следствие, он оказывает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местную и национальную экономику. Находясь в отдаленной точке евразий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и будучи отделенным от Японии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м проливом, город имеет также колоссальный потенциал как логистический хаб товаропотоко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усан отвечает более чем за 60% импортных и экспортных грузов Кореи.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рта Пусан, в 2018 году грузооборот порта составил 21.663.000 TEU, обеспечив ему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6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История обменов Пусана по морю восходит к далёкой древности. Тадэпхо, небольшой прибрежный городок в современном Пусане, упоминается в японских летописях «Нихон сёки» (720 г.) под названиями Тадайрагэн или Татара, и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усан играл центральную роль в корейско-японской торговле ещё в начале исторической эпохи.

Центр торговли древней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сборнике мифов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записей XIII века «Самгук юса» («Забытые деяния Трёх государств») регион Пусана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мест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по морю ещё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Легенда гласит, что в местности,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едалеко от нынешнего Пусана, король Суро, основ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а Кымгван Кая (43—532 гг.), взял в жёны Хо Хванок, якобы являющуюся принцессой индийск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Аюхта. История королевы Хо в наши дни признана историческим фактом. В качеств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историки ссылаются на узор в виде пары рыб на воротах гробницы короля Суро в Кимхэ. По их мнению, этот узор в силу его глубокой связи с индий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ей указывает на индийск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королевы.

Однако, как подтвержда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Кая и артефакты, найденные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в регионе Пусана и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ёнсан, морские контакты Кая не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только Индией.

С распадом конфедерации Кая в начале V века многие каяцы переехали в Японию, где познакомил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с технологиями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й из железа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керамики Суэ, внеся тем самым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ревней япон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Как следует из топонима Кимхэ (букв. «Море железа»), центр союза кая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был богат железом. Кая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ложившиеся на побережье прекрасного Южного моря и на берегах реки Нактон-ган, благодаря богатым месторождениям железной руды быстро стали крупным центром торговли в США. В сообществе этого региона, ставшего более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нным после падения китайской династии Хань, они заняли положение важного узла, связывающего Японский архипелаг и континентальный Китай. Располагаясь на пересечении морских путей

разных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кая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ставляли железо в соседние страны.

В «Нихон сёки» записано, что среди товаров, которые Кынчхо, король Пэкче, отправил в Японию в середине IV века, было 40 чушек железа. Такие чушки делали, отбивая куски железной руды, пока они не превращались в тонкие плитки. В те времена это было ценное сырьё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зных видов железной утвари. Похожие чушки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в захоронениях Пэкче и Силла, а также в древних могилах по всей Японии. В частности, извлечение десятков таких железных плиток при раскопках в бывших регионах Кая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они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не только как погребаль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но и как деньги и сырьё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железной утвари.

Чайна-таун и японский квартал

Поводом для появления в Пусане Чайна-тауна послужило открытие здесь в 1884 году консульства династии Цин. С тех пор китайский квартал занимает своё место напротив Пусанского вокзала. Здесь много китайских ресторанов, магазинов кита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обменников и других заведений, которые держат китайцы, а также школы для их детей.

Местный Чайна-таун создали китайцы, прибывшие сюда в XVII-XVIII веках, в поздний период Чосон, чтобы работать на рекламации земли для Пусанского порт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итайской морск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ы. Сейчас здесь проживают их потомки в третьем и четвёртом поколении. В ранний период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родины китайцы с лёгкостью оседали в Пусане. Немало этнических китайцев перебралось сюда и после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1953 году Чайна-тауну пришлось пережить испытания: Пусанский вокзал был разрушен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жара и располагавшиеся поблизости от него бордели переехали в этот район. Однако со временем они были вытеснены, и Чайна-таун вновь расцвёл, когда Корея и Китай установи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992 году, 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усан и Шанхай стали городами-побратимами. По этому случаю в 1999 году китайский квартал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Улица Шанхая», и с 2004 года здесь проводится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Чайна-тауна.

В то же время, в эпоху Чосон, в Пусане были также японские поселения, называемые «вэгван». Они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Чосона в открытых портах для японцев, чтобы те жили там и занимались торговлей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обменами, а такж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вести японских пиратов, которые бесчинствовали в прибрежных районах начиная с XIV века, в конце периода Корё. «Вэгваны» построили в трёх портах: в Пусанпхо в Пусане и Чепхо в Чинхэ в 1407 году и в Ёмпхо в Ульсане в 1426 году. Их стали называть «Сампхо вэгван», т.е. «Вэгваны трёх портов». Но в 1544 году, после случаев мародёрства со стороны японцев в регионе Тхонёна, два «вэгвана» снесли и остался только пусанск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Чосоном и Японией, разорванные после Имчжинской войны, начавшейся в 1592 году, были нормализованы вследствие политики Токугавы Иэясу, первого сёгуна сёгуната Эдо. Японские поселения были заново отстроены, в частности, в пусанском «вэгване» жило около 500

японцев. В то же время другой «вэгван», построенный в Чхоряне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 века, занимал площадь в 100 тысяч «пхён» (около 82 акров) и был поделён на жил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де могли остановиться посланники, и помещения для торг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дания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Чосона, но интерьеры были оформлены в японском стиле, а на полу лежали татами. За пределами «вэгванов»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пропускные пункты, осуществлявшие контроль за передвижениями японцев, однако внутри это была своего рода маленькая японская община, где люди ходили в япон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одежде и носили на поясе японские мечи.



Каменный знак, сообщающий, что в Тумопхо располагался «вэгван», т.е. японское поселение. «Вэгван» в Тумопхо был построен в 1607 г. и просуществовал более 70 лет; потом он был закрыт, после чего новое японское поселение появилось в Чхоряне. © «Outing on a Lovely Day» Naver blog

База для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С древности между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неоднократно случались вооружённые конфликты. Но 210 лет периода Эдо, которому в Корею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поздний период Чосон, прошли мирно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корейских эмиссаров. Вслед з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1607 году Чосон двенадцать раз отправлял в Японию большие посольства. Подобные регулярные обмены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и 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 редкость даже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В 2014 году две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 Пусан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фонд и японский Совет по связям со всеми местами, ассоциированными с Тёсэн цунсинси (Liaison Council of All Places Associated with Chosen Tsushinshi) — начали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по компиляции «Документов о Чосон тхонсинса / Тёсэн цунсинси: истории построения мира 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между Кореей и Японией с XVII по XIX века», которые в 2017 году были внесены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Память мир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 13 апреля РК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а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с 90 странами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с 13 апреля РК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ила действ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с 90 странами, ранее установившим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совместном пресс-релизе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юстиции, наряду с приостановкой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аннулируются долгосрочные визы, действующие более 90 дней, которые выданы до 5 апреля. Ужесточение визовых ограничений введено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РК растёт число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прибывающих из-за рубежа. Действие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с 34-мя странами Европы, 23-мя странам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Америки, 18-ю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девятью странам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шестью странами Африки. С теми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не вводи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том числе, с США, Великобританией, Ирландией и Мексикой,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сохраняется.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краткосрочные визы, должны повторно подать заявки на новые. Исключения сделаны для дипломатов, официальных делегаций, экипажей самолётов и морских судов, а также для держателей виз категории С-4, приглашён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Иностранцам, ранее въехавшим в РК, разрешено оставаться в стране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их виз.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у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в которой указывается, имеет ли заявитель симптомы, связанные с вирусом.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151 страна и территория ввели полный или частичный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из Р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раждане будут эвакуированы из России 25 апреля чартерным рейс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России, 25 апреля из Москвы вылетит чартерный рейс компании Korean Air, который доставит на родину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еред посадкой в самолёт у пассажиров будет измерена температура, и если у человека температура выше 37,5 градусов, то его не допускают к посадке. По прибытии в РК пассажиры, у которых обнаруживаются симптомы,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ирус COVID-19 прямо в аэропорту, а остальные - пройти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вирус COVID-19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суток. Это будет третий по счёту чартерный рейс для эваку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из России на родину. Он организован по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между посольством РК и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воздуш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остановил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27 марта,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ируса COVID-19, а 30 марта закрыло все границы, включая сухопутные.

РК возобновит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озобновит раскопки в район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с целью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г. 19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Сеул и Пхенья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вместные раскопки на высоте Хвасальмори, где проходили жестокие сраж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также осуществляла раскоп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поскольку Север не ответил на призывы к совместной реализации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Как сообщи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в Минобороны РК, военные продолжат работу по обезвреживанию мин и извлечению останков с южной стороны высоты Хвасальмор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2030 фрагментов тел 261 погибшего.

«Паразиты» -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на сервисе Hulu

Фильм «Паразит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удостоенный четырёх премий «Оскар»,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фильмо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сервисе потокового видео Hulu, третьей по величине платформы по доставке видеосигнала после Netflix и Amazon Prime Video. Трансляция началась 8 апреля, и всего лишь за неделю «Паразиты» поднялись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росматриваемых релизов в библиотеке Hulu. Позади остались такие известные фильмы как «Тихое место», «Крид-2», «Трансформеры: Последний рыцарь» и «Как приручить дракона-3».

(RKI)

Сообщения о проблемах со здоровьем Ким Чен Ына вызвали скептическую реакци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 американские СМИ, ссылаясь на анонимные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или, что у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ак минимум,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опроверг эти сообщения, указав на расхождения с имеющейся у разведки Южной Кореи информацией. Некоторые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озможно, заболел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ервым изданием, которое в своем сообщении "уложило на больничную койку" лидера Страны чучхе, бы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новостной портал Daily NK, который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информации по КНДР и в котором работ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перебежчик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итируя полученную от неназ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 КНДР информацию, издание заявило, что 12 апреля Ким Чен Ын перенес серьез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сердце и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врачей. Daily NK предоставило и некоторые детали, сказав, что операция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линике Хянсан, которая расположена в районе горы Мёхянсан в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Пхёнган. Больница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обслуживании членов семьи Кима. Сам лидер КНДР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а одной из своих дач в том же районе, где проходит реабилитацию.

Утверждалось, ч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операции для Ким Чен Ына из Пхеньяна были вызваны лучшие хирурги из больницы им. Ким Ман Ю, клиники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КНДР и больницы Пхеньян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когда стало ясно, что лидер перенес ее нормально и его состояние стабильное, часть врачей 19 апреля вернулась в столицу, тогда как другие продолжают оставаться рядом с ним, постоянно следя за состоянием пациента.

По поводу причин ухудшения здоровья Кима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из-за его "проблем с весом, чрезмерного курения и напряженной работы".

Далее масла в огонь подлили американские СМИ. Телеканал CNN, ссылаясь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ША, сообщил, что у спецслужб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еренес операцию на сердце и его состояние критическое.

Эти сообщения спровоцировали оживление среди СМИ и экспертов, кто занимаетс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ой.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Ким дал определенные поводы, чтобы что-то заподозрить. В частности,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15 апреля в КНДР в связи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его деда - основате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Ир Сена, Ким Чен Ын впервые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не принял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в Кымсусанском дворце. Последний раз же Ким появлялся на публике 11 апреля, когда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расширенного состава Политбюро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прочем,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Южной Кореи сразу же усомнились в достоверности сообщений. Если обобщать слова нескольких источников, которых цитируют различные газеты и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

рея, то реакц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ула следующая: "У нас нет никаки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этим сообщениям,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не замечено". Один из чиновников Юга просто прямо заявил, что "информация, озвученная в СМИ по поводу Ким Чен Ын,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Было также заявлено, что по информации разведки Юга Ким Чен Ына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е в горах Мёхянсан, а "в другом месте",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в Вонсане.

"Подобные слухи о проблемах Кима со здоровьем стали появляться уже пару недель назад,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Японии. Но все на уровне разговоров, которые невозможно как-то подтвердить. Мы сами, конечно, следим за всей ситуацией и информацией, но пока ничего необычного не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 КНДР также все без изменений и намеков на какую-то экстренную ситуацию нет", - цитирует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Ёнхап" слова сотрудника одного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едомств.

Независимые эксперты же заняли выжидательную позицию, отмечая, что по поводу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Кима разговоры ходят давно, но все они из разряда сплетен.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тсутствие Кима на церемонии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во время самого главного для КНДР праздника - дня рожд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ычное дело. Но тут ж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если верить СМИ, то график у Ким Чен Ына получился очень напряженным. Еще 11 апреля он выступал на заседании Политбюро в Пхеньяне, а буквально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оказался на операционном столе, но не в столице, а достаточно далеко. Если бы были какие-то намеки на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то логичнее было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лице, где все лучшие медик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были под рукой.

Некоторые специалисты высказ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возможно эти слухи отражают лишь часть картины: Ким Чен Ын заразился коронавирусом, а рассказы про операцию появились по принципу "испорчен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авда, и они признаются, что это лишь версия, не более того.

Пожалуй,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всем спекуляциям сможет только сам Ким, если появится на публике лично, либ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будут получены подтверждения из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Напомним, когда в 2008 году у 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случился инсульт, журналисты и эксперты долго спорили, правдивы эти слухи или нет. Потом появился он сам, и по внешнему виду стало ясно,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 него были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Позже всплыли и иные факты в пользу версии с инсульт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COVID умеет повторяться?

У медиков Южной Кореи появилась новая забота -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чему пока трудно найти адекватное объяснение.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стали регулярно фиксироваться случаи, когда у тех, кто переболел COVID-19 и был признан выздоровевшим, вновь диагностируют коронавирус. Всего в стране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уже 179 таких случаев.

Первоначально медики надеялись, что те, кто переболел COVID-19, выработывают к нему иммунитет, а потому не будут впредь заражаться. Подобная логика применяется и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вакцин, поэтому повторные заражения вызывают тревогу у медиков.

Глава Центр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заболеваний при Минздра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Ын Ген сообщила, что "причины и механизм повторных заражений пока выясняются". По одной из версий, имело место не повторное заражение, а повторная активация вируса, который был в организме. По другой, тесты выявляли "остатки" уже побежденного вируса.

Важным фактом является также и то, что до сих пор от 179 "повторно заразившихся" никто не был инфицирова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ОЭСР: В КНДР формируется гибридная экономика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представила доклад, в котором экономика КНДР впервые анализируетс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ыночных теорий. В документе, который основан на информации мировых СМ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роблемам, говорится о росте внутренней торговли, в частности, о росте числа частных рынков.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только в Пхеньяне работают 30 рынков,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больше по площади, чем знаменитый торговый центр Тондэжун в Сеуле. По оценкам ОЭС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вается как гибридная, в которой соединяются рыночная и плановая экономики, поскольку коммер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сё больше остаётся вне контроля государства,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ли армии.

KBS World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градил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я за прибывающими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около 6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омещены в обсервацию. За соблюдением режима следят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и сотрудник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Ежедневно проверяется до 100 домашних адресов, где находятся прибывшие на остров, а также контролируется нахождение граждан в обсерваторах.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анитарно-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й подкомиссии комиссии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Ч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сообщалось ранее, число авиарейсов с материковой части на остров уже сократилось втрое. Вместе с те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обсервацию всех гостей в регион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увеличат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задействованных в обязательной изоляции людей – с 23 до 30. Сейчас в таких пунктах пребывают около одной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 люди, работаю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вахтовым методом.

– В этих точках установлены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 они касаются уборки помещений, тестирования людей. Так, человек, находящийся на обсервации, 2 раза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сдаёт анализы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и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делает компьютерную томографию легких.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пациентов пристально следят медики. Причем за каждый объект несу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пециально назначенные люди,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у которых есть сахалинская прописка, проходят обсервацию на дому. В течение минувших выходных нарушителей режима среди островитян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оказалось. Однако за все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верок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и и контролируемые органы выявили около 180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не соблюдали изоляцию. Им выписаны штрафы на общую сумму более 1,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До 20 мая в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санитарную очистку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ребования введены изменениями в указ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обязаны организовать очистку территории от мусора и провести санитарную обработку поверхностей, с которыми могут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люд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местах. Речь идет об остановках, скамейках,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ках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ах.

Все районы должны до 24 апреля сформировать бригады из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необходимой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Навести порядок обязаны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а также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Владельцам зданий, помещений и территорий также предписано провести очистку и санобработку.

В случае, если у бизнесмена или предприятия отсутствует договор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 30 апреля. Мусор вывезут бесплатно. В обращении следует указать реквизиты и приложить некоторый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По ссылке https://sakhalin.gov.ru/fileadmin/201912/No31_ot_21.04.2020.pdf доступен список необходимых данн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рили качество санитарной обработки подъезд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УК)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санитарную обработку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Предписано

регулярно обрабатывать дезинфицирующими средствами контактные поверхности – дверные ручки, перила, кнопки вызова лифтов, дверцы почтовых ящиков, домофо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жилищная инспекция региона контролирует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ия этой работы. За четыре дня специалисты выборочно проверили 308 подъезд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ходящихся в управлении 18 УК.

Работу большинства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признали хорошей. Вместе с тем, было составлено 2 протокола, вынесено 19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й по помывке подъездов. Среди типичных нарушений – несоблюдение графиков санитарной обработки и некачественная чистка контактных поверхностей.

– Руководителям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рекомендовали более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оситься к чистоте перил, подоконников, ручек входных дверей. Строгий подход вполне обоснован. Санобработка эффективна лишь, когда проводится на чистых поверхностях,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Госжилинспек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Цуканов.

Инспекция продолжи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качество санобработки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инспекторам поручено провести такие же проверки в своих районах.

В случае выявления нарушений управляющим компаниям грозя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штрафы: дл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 от 10 тысяч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 от 100 тысяч д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школы и федерации помогают нуждающимся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К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портсмены и их родители, а так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й.

В частности, на протяжении уже нескольких недель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занимается федерация конного спорта.

– Сейчас мы доставляем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горячие обеды и лекарства пенсионерам, а также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и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 рас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Литвин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федерации. – В наш добровольческий отряд входит пять человек. Это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спортсмены, а также родители младших ребят.

Ежедневно добровольцы из федерации конного спорта получают около шестидесяти заявок. Вся работу проводят совместно с центром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и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обая задача – у тренеров и сотрудников школ восточных видов единоборств,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ОГАУ «Футбольный клуб «Сахалин». Ежедневно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помогают медикам встречать островитян, вернувшихся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размещать их в обсервациях.

Сегодня специалисты разных спортшкол раздают листовки, ведут разъяснительные беседы с гражданами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а также проводят онлайн-занятия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в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 у частных инициатив. Так, помощь нуждающимся оказывают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икбоксинга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и начальник шта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Юнармия» Дмитрий Миняев.

– В основном, мы занимаемся доставкой продуктов ветерана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пригороде. Недавно посетили 91-летнюю жительницу Мицулэвки, она была нам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ей Буторин.

Каждый будний день с 17 до 19 часов активисты работают в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Поскольку пропуск и

посещения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закрыты, волонтеры собирают все передачи для пациентов в отдельном здании и развозят их по корпусам.

Также к волонтерскому движению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сотрудник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Анна Пинчук. Ежедневно специалист привозит пенсионерам, ветеранам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а также людям, находящимся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или попавшим в труд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лекарства и готовые обеды.

Для уволенных после 1 марта установили единый размер пособия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которые были уволены после 1 марта 2020 года и признаны безработными, в апреле, мае и июне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пособие из расчета 12130 рублей в месяц.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людей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предусмотрело федер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состоящим на учете в качестве безработных, сумму пересчитаю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 1 апреля.

Кроме того, для таких островитян ввод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 по 3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до 18 лет. Если на учете по безработице стоят оба родителя, деньги получит один из них.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плат на детей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необходимо связаться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центров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нили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В связи с угрозо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торжеств,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ику Весны и Труда, а также 75-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 мая в регионе н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митинги и шествия. А 9 ма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запрете масштабных уличных акций, посвященных Дню Победы, в регионе отменили военный парад и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дем и парад, и шествие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это станет возможным, исходя из требован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 конкретных сроках пока сказать ничего нельзя, но очевидно, что торжества пройдут в те же даты, что 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сё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от реш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9 мая акция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ройдет в эфире телеканала ОТВ-Сахалин. С 8.30 утра и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дня в тексте бегущей строки будут указаны имена героев войны.

По скорректиров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9 мая пройдет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и венков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х ветеранов в регионе, а это около 850 человек, поздравят волонтеры. Добровольцы отправятся к ним по домам с праздничными продуктами наборами и с цветами, соблюдая меры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запланирован «Урок мужества». Его проведут у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музеем «Победа». Учащимся расскажут о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роли боевых операц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1945 году.

Без изменений оставлена схема украшений и праздничной иллюминаци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проект

Пусан: город поэзии и страсти Пусан: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во глав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менов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 странице)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состоящий из 63 документов и записей (124 единицы) из Кореи и 48 документов и записей (209 единицы) из Японии, имеет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как первое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наследие Пусана, включенное в список ЮНЕСКО. Это также первая совместная номинация Кореи и Японии, ставшая возможной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гражданских групп и получившая признание ЮНЕСКО.

Каждое посольство в Японию состояло из 400–5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самих посланников, писцов, военных, музыкантов, художников, литераторов и т.д. Отправившись из Сеула, посольство прибывало в Пусан, где оставалось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миссии и дожидатьс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погоды и попутного ветра. Когда наступало подходящее время, члены

делегации проводили обряды в честь морских богов в павильоне Ёнгадэ и отплывали на шести кораблях с близлежащей пристани.

Миссии во имя мира

Сойдя с кораблей на острове Цусима, посольство следовало к своей конечной цели — Эдо (современный Токио), для чего проезжало через 53 станции. Чтоб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принять корейских посланников, Япония брала на себя огромные расходы. Например, во время приезда 8-го посольства в 1711 году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338.500 работников и 77.645 лошадей.

В Японии, которая тогда была закрытой страной, приезд коре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был поводом для пышного приёма и грандиоз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ольства Чосона вызывал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не только у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но и у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сословий. Японцы считали за че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с корейскими литераторами и художникам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посольство устраивалось на постой, они приезжали туда, чтобы обменяться литературн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картинами и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ими работами. Поэтому корейские посланники были настолько заняты, что с трудом находили время для сна. Записи и картины, описывающие такие сцены, сохранились как в Корею, так и в Японию. Япо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периода Эдо с энтузиазмом принимали культуру Чосона, и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тало движущей силой взлёта япон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того времени.

В Японии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более сотни книг с записями об этих обменах. Писатели и чиновники Чосона тоже написали множество докладов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Эти документы служат ценным источником информации, помогающей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тправившись из Сеула, посольство прибывало в Пусан, где оставалось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миссии и дожидаться погоды, благоприятной для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морю, и попутного ветра.

Пак Хвачжин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гён
Источник: <https://koreana.or.kr/>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3. 자갈치 시장, 소음과 침묵의 대화

(전호의 계속)

수협 공관장을 지나면 그 옆으로 큼직한 건물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의도를 짐작하려면 곳곳에 개방된 출구를 이용해 건물의 안을 통과해 바다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도심의 등지고 바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흰색 갈매기를 형상화한 이 건물의 전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건물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예상 밖의 풍경에 놀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제페토 할아버지가 촛불을 켜고 지내던 고래 뱃속을 떠올릴 것이고, 어떤 이는 거대한 잠수함의 잘 구획된 실내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좁은 통로들의 양 옆에는 동일한 규모와 인테리어로 늘어난 점포가 끝없이 이어져 있는데 그 수가 무려 7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더 진기한 것은 점포마다 있는 수족관 가득 살아 꿈틀대는 물고기와 어패류들이다. 이것들은 상인과 손님들의 흥정이 끝나면 곧바로 손질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직전에 파닥거리는 물고기의 마지막 몸부림과 그 물고기를 다루는 상인들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 아마 파브리시우스가 보았다는 '펼떡이는 에너지'의 결정판일 것이다.

원한다면 2층에 마련된 식당에서 방금 잡은 물고기로 차린 근사한 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손님과 대화를 나눌지도 모른다. 운 좋게 부산이 고향이면서 직장 때문에 타지에 살다 오랜 만에 부산으로 출장을 나온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로부터 꼼장어 구이와 조개 구이 같은 부산의 또 다른 해물 요리를 추천받았을 수 있다. 이들의 대화를 뚫고 들어선 호기심 많고 애항심이 넘치는 여주인으로 부터 이곳이 100년 전 자갈밭 해안가에서 출발한 자갈치 시장의 원조이며, 노점상들이 50여 년 전 어렵사리 자금을 마련해 이룩한 시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요약에 능한 통역은 "이곳에 없다면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말을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새 터전이 되다

시장 상인들의 궁지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그는 근처에 있는 부산근대역사관에 들어서서 느꼈으리라. 이곳은 개항과 함께 일제의 침략과 수탈로 형성된 부산의 근대사를 조명하고 있다.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이 일본의 거대한 식민 자본이 운영하는 대규모 어시장에서 좀 떨어진 동돌 해안가에서, 작은 고

깃배를 가진 지역 어민들이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를 영성한 좌판에 늘어놓고 팔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점이다. 그들 중에는 물질을 하러 제주에서 건너온 해녀들이 적지 않았는데, 올 가을에야 비로소 제주 해녀들의 첫 기착지인 영도에 그들을 기리는 해녀상이 세워졌다.

이곳은 일제의 패전으로 해방이 되자 일본에서 건너온 동포들이 가세하면서 몸집을 불렀고, 한국전쟁 중에 피난민들이 생존을 위해 대거 모여들면서 전국에 널리 이름을 알렸다. 왜 그들은 이곳을 새 터전으로 삼았을까.

예부터 부산 인근 바다는 그물만 하나 쳐 놓아도 생계 걱정은 안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물고기가 많았다. 요즘은 어종이 많이 바뀌었지만, 대구와 청어가 회유하던 20세기의 겨울에는 이 일대가 각지에서 온 고기잡이 어선들로 크게 붐볐다. 자갈치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펴낸 자료집 『상징 자갈치 생생한 이야기』(2011년)에 일제 강점 이전인 1903년과 1904년 사이에 영도에만 227가구 862명의 일본 어민들이 이주해 정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어족 자원이 어지간히 풍부했던 모양이다. 이들은 앞선 기술과 장비를 이용해 남획한 수산물을 중국에 수출까지 했다.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들자. 근대 이전부터 한국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곧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시장인 난전이 성행했는데 특히 어물 난전은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고 거래 상품의 취급이 여러모로 손쉬워 규모와 세력이 컸다. 그 틈새를 타 전쟁이 끝나고 남북 분단으로 돌아갈 고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자갈치 시장에 섞여들게 된 것이다.

아마 눈썰미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갈치 시장에 유난히 장사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을 것이다. 부산 사람들은 이들을 '자갈치 아지매'라 부른다. '아지매'는 '아주머니'의 부산 사투리다. 이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곧 어린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거친 바닷바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하루 종일 부둣가에 쪼그리고 앉아 그날 떼어온 생선을 팔았다. 거친 역양으로, 흥정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사정하듯, 때로는 싸울 듯 언성을 높여가며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붙들었다. 그들이 보여 준 퍼포먼스는 부산 사람들의 식탁을 넘어 가장 부산다운 낮익은 정경으로 한국인들의 뇌리에 인상 깊이 남았다. 결국 시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부산 아지매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후부터 산업화까지 부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명소로 자갈치 시장을

기억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파브리시우스가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찾았다는 부산의 정체성일 것이다.



"관계항 - 좁은 문" (Relatum - Narrow Gate). 이우환. 2015. 철판 220 x 320 x 3 cm. 자연석 100 x 100 x 100 cm. "관계항" 연작은 인공적 생산물인 철판에 자연물인 바위를 대비시킴으로써 산업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안락함과 속됨

부산은 귀족의 도시가 아니라 평민의 도시다. 부산은 개선문의 도시가 아니라 피난민의 도시다. 질서나 권위 같은 우월함을 지키기보다는 우선 먹고 살기 위해 모여든 보통 사람들의 다급한 욕망을 달래 주고 해결해야 하는 도시다. 완전함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결핍된 뭔가를 끝없이 메워야 하는 도시에서 일과를 마치고 팔베개를 하고 두 다리를 뻗었을 때 밀려드는 감정은 평온함이나 안락함보다 더부룩함과 속됨과 부끄러움일 것이다. 적어도 그가 예술가라면 말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입구에는 부산에서 모은 폐목재로 얼기설기하게 출입구를 장식한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 카와마타 타다시(Tadashi Kawamata)의 작품이 있다. 이만해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상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보다는 같은 미술관에 있는 이우환의 작품들을 주의 깊게 보기를 권한다. 그가 돌과 철판이라는 부산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사물에서 찾은 침묵과 고요는 어느 깊은 산중에서 얻은 선협적이고 정신주의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나는 주저 없이 자갈치 시장의 한복판을 연상한다. 그는 이 높은 엔트로피의 도시가 뿜어 내는 분주함과 외침에 가까운 소음 속에서 '관계'와 '대화'를 말하고 있다. 고요하다. 아주 고요하다.

2020년에는 야곱 파브리시우스가 우리 안에서 어떤 부산을 찾아낼까. 그 길은 산책로일까, 비상구일까?

이창기(Lee Chang-guy 李昌起) 시인, 문학평론가
안홍범 사진

출처: https://koreana.or.kr/

양주 사할린동포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

양주시 사할린 동포회(회장 강상용)는 지난 6일 회천4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기부받은 성금은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상용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불우이웃을 위해 동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며 "기탁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호 동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양주시 사할린 동포회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주)경방, 제천거주 사할린동포에게 한방물품 기부
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사로 도움의 손길 나뉨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사 (주)경방의 어수옥(왼쪽) 대표가 사할린 동포 51가구에 제천한방제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사 (주)경방이 지난 13일 제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 51가구에 제천한방제품과 생필품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물품은 한방치약, 바디용품, 주방세제, 위생백, 휴대용치약세트 등 약 850만원 상당으로 영천동 소재 강저휴먼시아1단지에 거주 중인 사할린 동포 가구에 전달됐다.

어수옥 대표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평소 사할린 동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으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며 "제천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경방은 2009년 설립해 한방추출물과 프로폴리스를 첨가한 특허 받은 기술로 제작된 프로폴리스 아이런치약과 한방약초와 아로니아 함유된 백세수련치약 등을 전문으로 생산, 유통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부물품 전달에 참가한 제천시 한방바이오과 관계자는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은 지난 3월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 한방제품을 지원한 바 있다"며 "그에 앞서 지난 연말에도 사랑의 자선바자회에 참여해 할인판매와 더불어 입점 기업 제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천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한방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충북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Новый формат акции позволит растянуть "Библионочь" н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всеми площадками, сообщают в библиотеке.

유즈노사할린스크 승리 박물관, 가상현실로 작업

승리 종합기념박물관이 활동교실과 가상현실 전 시회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숨쉬섬 상륙에 참가했던 영웅들과도 만나보고, '한다스' 경찰초소의 무장한 일본 병사들과 장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으며, 소련군이 코톤스키 방공구역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점령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해방시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904년 - 1905년 러일전쟁 사건에 뛰어들어 사할린 주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어떻게 희생적으로 헌신했는지 보게 된다. 특별히 박물관의 어린 관객들을 위해 준비된 대단히 흥미로운 활동교실은 —용감한 우주비행사를 만들어 그들과 먼 별들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Музей Побе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ботает виртуально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приглашает на виртуальные экскурсии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Вы познакомитесь с героями, принимавшими участие в де-

санте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узнаете, как жили японские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оборонявшие полицейский пост Хандаса, и как успешное взятие Котонского укрепрайона позволило советским бойцам освободить Южный Сахалин. Вы также погрузитесь в событ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одов, увидите, как самоотверженно трудились в тылу сахалинцы во им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юных друзей музей подготовил удивительн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здайте отважного космонавта и отправляйтесь с ним в увлекате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к далеким звездам.

사할린에서 대량의 위조 알코올류 차단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경제 안보 및 부패 방지국 직원들이 사할린 지역에 위조 주류 판매 건을 차단시켰다. 이 불법행위를 적발해 주 중심의 30세 가량의 사업가를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할린 주민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내륙에서 대규모 불법 주류를 운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컨테이너와 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드카를 발견한 경찰은 이후 검사를 진행하여 병에 붙어 있던 연방 소비세 상표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갈색의 알코올 성분의 액체가 담긴 5리터의 용기와 소량의 분배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와 상표들이 붙은 0.5리터의 병들도 발견됐다. 드럼통에서 나온 의심스러운 액체는 더러운 침전물에서 걸러진 후 코냑 병에 부어 봉합되고 고급스런 알코올 음료로 둔갑해 판매처에 보급되었다.

경찰은 불법 주류 위조로 60만 루블리 이상의 위

조 주류 드럼통과 술병 2천 병 이상을 압수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не допустили к продаже крупную партию контрафактного алкоголя

Сотрудниками управ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орруп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сечен факт сбыта контрафактного алкого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Данное противоправное деяние инкриминируется 30-летне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ю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лицейские выяснили, что подозреваемый приобрел на материке крупную партию нелегальной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которую намеревался продавать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В контейнере и грузовом автомобиле, арендованных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м, стражи порядка обнаружили коробки с водкой различ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Как впоследствии установила экспертиза, федеральные акцизные марки на бутылках были поддельными.

Также здесь находились пятилитровые канистры со спиртосодержащей жидкостью коричневого цвета, поллитровые бутылки с этикетками и инструментарий, используемый для розлива. Как оказалось, сомнительная жидкость из канистр профильтровывалась от грязного осадка, а затем переливалась в бутылки из-под коньяка, которые запечатывались и уходили на продажу под видом благородного напитка.

Всего из нелегального оборота сотрудниками полиции было изъято более 2 тысяч бутылок и канистр контрафактного алкоголя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свыше 600 тысяч рублей.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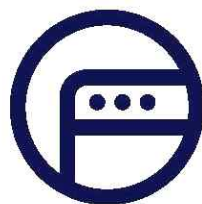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Правда о содержании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есут авторы.</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н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9-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